

한국 언론의 테러보도 분석

김선일 씨 피랍사건을 중심으로

이창호*

이 연구는 김선일 씨 피랍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의 테러보도에 나타난 일반적인 경향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KBS, MBC, SBS에 보도된 김선일 씨 피랍관련 386건의 뉴스 내용을 분석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피랍사건에 나타난 주제와 피랍사건을 전달하는 데 있어 사용된 주요 정보원을 조사했다. 또한 김 씨를 납치, 참수한 단체로 알려진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를 언론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테러가 일어난 사회적이고 역사적 맥락을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방송 3사의 보도에 나타난 가장 지배적인 주제는 피랍의혹과 관련된 조사와 납치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을 다룬 것이었다. 하지만 파병반대목소리나 테러리스트의 요구나 주장은 비교적 소홀히 취급됐다. 방송 3사가 의존한 뉴스 정보원은 정부 관료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알자지라를 비롯한 미디어도 주요 정보원이었으므로 조사됐다.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에 대한 언론 묘사는 다소 부정적이었고 무장단체(조직/세력)란 표현이 가장 많이 발견됐다. 테러가 일어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나 맥락을 전달한 뉴스는 극소수에 그쳐 한국방송의 테러보도는 여전히 일화적임을 보여줬다.

주제어: 저항적 테러리즘, 제도적 테러리즘, 일화적 프레임, 주제적 프레임, 9·11테러

1. 들어가며

2004년 6월 21일 김선일 씨 피랍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충격에 빠졌다. 국민들은 김 씨의 무사 석방을 간절히 원했지만 끝내 그는 참수돼 싸늘한 시신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 유일신과 성전을 의미하는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 단체는 참수 직전의 비디오 화면을 6월 23일 공개했는데 이 비디오에서 김 씨는 두려움에 떠는 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을 표출했으며 제발 이라크에 한국 군인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절규했다. 이 장면은 TV를 지켜보던 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초 그는 5월 31일 피랍됐으나 가나무역 사장이 무장단체와 개인적으로 교섭을 벌이고 피랍사실을 정부에 알리지 않는 바람에 피랍된 지 20일이 넘는 6월 21일이 돼서야 피랍사실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미리 피랍사실을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은 미국이 사전에 피랍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피랍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실, 김선일 씨의 피랍사실이 있기 전만 해도 한국사회는 테러의 무풍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테러를 경험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파병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우리 사회는 테러위협에 줄곧 시달렸다. 정부는 2003년 4월 30일 국군 서희·제마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한데 이어 그해 말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2004년 2월 추가파병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그해 8월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유지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ifsc334@nypi.re.kr)

재건, 한 미 동맹강화 차원에서 파병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알 카에다 등 테러 조직들은 한국군의 파병목적은 이라크 재건이 아니라 미국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 단체는 김선일 씨를 인질로 파병철회를 노렸지만 한국정부가 파병철회 불가방침을 고수하자 김 씨를 참수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같은 김선일 씨 피랍사건의 보도와 관련, 이기현과 이동훈(2004)은 한국 방송사의 보도가 선정적이고 추측성 뉴스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피랍자의 종교와 직업 등 개인정보가 언론을 통해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사태해결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즉 그의 꿈이 중동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고 미군에 물품을 제공하는 군납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정보는 피랍자 신변 안전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피랍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피랍사건보도의 기본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라는 것이다. 또한 피랍 협상과정을 포함한 현지 상황에 대해 근거가 불명확한 추측보도가 많아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판단에 혼선을 줄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피랍관련 초기의 TV뉴스에 초점을 맞춰 조사기간이 짧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실, 테러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같이 테러가 빈번했던 지역에서 많이 이뤄졌다. 특히 2001년 발생한 9·11참사나 1979년 발생한 이란 미 대사관 인질극 사건, 1985년의 미 항공기(TWA Flight 847) 공중 납치, 1995년 오클라호마 도시 폭파 등 테러행위는 그 극적인 성격만큼이나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테러 보도시 테러의 폭력성이나 잔인성을 부각시킨 나머지 테러가 일어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Steuter, 1990). 또한 정부 관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미국 저널리스트 스스로도 감정적 애국주의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Dickson, 1994; McChesney, 2002). 그 결과, 테러리스트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한 존재로 묘사됐고 그들의 주장과 요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테러보도에 나타난 이러한 일반적 경향들이 한국 언론의 김선일 씨 사건 보도에도 드러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자국민이 테러로 희생된 사례가 국내에서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테러보도의 경향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김선일 씨 피랍사건관련 보도의 주제와 정보원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방송이 향후 테러와 같은 위기상황을 보도할 때 어떤 저널리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2. 테러리즘과 미디어

1) 국익위주의 보도

테러리즘과 미디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즉 테러리스트는 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반면 미디어는 뉴스가치가 비교적 높은 테러보도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려고 한다.

이효성(2002a)은 이러한 테러리즘과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논의는 테러리즘 보도는 추가 테러를 낳을 우려가 많은 ‘전염효과’를 갖고 있는 만큼

언론은 테러보도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보도 통제가 이뤄진다. 둘째 논리는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채 양적이고 질적인 분석을 통해 테러리즘 보도의 특징을 서술하는 비교적 중립적인 논리다. 셋째 논리는 언론은 테러리즘 보도시 국가의 홍보수단이 되어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들을 매도하고 이에 대처하는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적 연구의 입장이다. 이 세 번째 입장에 따르면, 언론은 국가가 행한 국가테러리즘의 정당성을 옹호함으로써 국가가 행한 폭력이나 억압에 대해서 침묵하게 된다. 그는 세 번째 유형인 비판적 연구 전통에 입각해 9·11테러 이후 전개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국가테러리즘에 대한 미국언론의 보도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언론이 국가 테러리즘에 대해 보다 비판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국가테러리즘은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며 테러리즘을 발본색원하기보다는 테러리즘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맥체스니(McChesney, 2002)의 입장 또한 이 같은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그는 9·11테러 후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에 비유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테러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호의적이고 민주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가 자유와 부유한 생활 방식 때문에 미국을 증오하는 정신 나간 악한 테러리스트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했다. 그러므로 미국은 즉각 군사력을 증강해야하고 생존해 있는 테러범들의 위치를 파악해야하며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이어 미국은 세계적인 테러 망을 파괴하기 위한 장기간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p.16).

이러한 보복과 전쟁 중심의 언론 보도는 미국이 추진한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를 예방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보복행위가 다른 테러 행위와 마찬가지로 인류애에 반하는 범죄행위가 아닌지 심사숙고할 수 있는 토대를 빼앗아 갔다. 더구나 테러와의 전쟁이 미칠 잠재적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부시 대통령에게 이 세계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되짚어볼 문제다. 맥체스니는 특히 미국 언론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캠페인을 통해 군산복합체를 공고히 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강력한 이익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은 미소 냉전 때부터 추진해 온 군사력 지출과 증강을 다시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9·11테러보도와 관련,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두 신문에 나타난 지배적인 주제는 테러에 대한 보복과 응징이었다(Lee, 2003). 이러한 보복중심의 뉴스 프레임은 “미국이 수천 명의 민간인 목숨을 앗아간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격당했다. 따라서 미국은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해 있다. 마침내 이러한 보복은 테러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 준비로 현실화되었다. 9·11테러 발생 며칠 뒤 부시 대통령은 35,000명의 예비군을 소집했고 미 의회는 테러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을 승인했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조직과 관련된 모든 자금줄을 봉쇄했다. 즉 9·11테러를 배후조종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모든 이슬람 테러리스트 집단과 개인들에게 국제 금융 체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전 세계 은행에 대해 제재와 통제를 가했던 것이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많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노력은 주류 언론에 주로 보도됐던 것이다.

이처럼 언론은 테러보도시 테러의 잔인성이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테러리스트를 악인과 동일시함으로써 국가권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 타임(Time)에 보도된 1986년 발생한 테러관련 사건 분석을 통해, 스투터(Steuter, 1990)는 미디어가 정치적 권력과의 공생적 관계 때문에 테러행위의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인 맥락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테러리스트들은 범죄폭력배와 동일시됐고 종종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음모자의 산물로 규정됐다. 이들은 또한 비합리적이거나 야만적인 존재로 묘사되곤 했다. 이처럼 주류미디어는 테러리스트의 목적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 행위의 폭력성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면서 테러행위에 놓여있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대의를 무시했던 것이다.

대체로 미디어는 저항적 테러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비판적인 보도태도를 나타냈지만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주도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다소 침묵하는 경향이 강했다(Wittebols, 1991). 위트볼스는 테러리즘을 저항적 테러리즘(grievance terrorism)과 제도적 테러리즘(institutional terrorism)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권력에 맞서거나 사회 피해를 교정하려는 반정부적 테러(insurgent terrorism)로 정의되고 후자는 테러사용을 통해 기존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위를 포함한다. 저항적 테러리즘의 예는 일제 압축기에 상해 홍구 공원에서 일본의 전승기념일 축하식 단상에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일제에 항거했던 윤봉길 의사다. 제도적 테러리즘의 예는 파나마의 노리에가(Noriega) 군사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그를 마약 밀매업자로 내몰면서 1989년 미국이 파나마 침공을 감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파나마 민간인이 살해됐지만 이것을 문제 삼은 미국언론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미국이 테러에 연루된 정부의 후원자거나 지지자였을 경우 미 언론은 국가주도의 테러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비판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즉 미 언론은 미국정부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세력의 테러행위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테러행위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테러에 대한 언론보도와 담론은 테러의 근저에 놓인 정치적인 목적과 대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테러의 현상적인 측면을 부각시킴을 알 수 있다. 이효성(2002a)의 지적처럼, 언론은 테러리즘에 관한 사후 보도에서 그 원인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뒀 테러리즘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 테러리스트의 요구나 주장 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언론은 테러의 파괴적인 결과를 부각시키면서 테러리스트들을 과격하고 광신적인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테러리즘 자체가 저널리즘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이 평소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테러와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2) 정부관료 의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주류 미디어는 테러나 전쟁 같은 위기를 보도할 때 정부 관료를 비롯한 공식적 뉴스 정보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베넷(2003)의 인덱싱가설(indexing hypothesis)에 따르면, 매스미디어는 공중의 반응보다는 정치적 엘리트 간에 이뤄지는 논쟁의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언론은 시민들의 목소리보다는 권력이 있는 주요 의사결정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한다. 실제로 미국 미디어는 경제적인 필요와 상호 간의 이해 때문에 백악관, 국방부, 그리고 국무성과 공생적인 관계를 맺어왔다(Herman & Chomsky, 1988). 허먼과 촘스키(Herman & Chomsky, 1988)의 ‘선전 모델(propaganda model)’에 의하면 미디어의 정부 정보 의존은 미디어가 지배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중의

동의를 만들어내는 5가지 요소 중의 하나다. 이 외에도 그들은 미디어기업의 소유 집중, 매스미디어의 주요 소득 원천으로서의 광고, 미디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격렬한 비난(flak),¹⁾ 그리고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반(反)공산주의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요소로 인해 현 질서에 대항하는 대안적 관점은 언론보도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뉴스 선택은 공중의 이해에 기초해 있기보다는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과 결탁한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1988년 발생한 미국의 파나마 침공을 보도할 때 워싱턴의 정치 엘리트와 남미 관료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Dickson, 1994). 그 결과 파나마인의 의견과 논평은 거의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신문에 나타난 주제의 61%가 미국 정부가 파나마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었고 나머지 39%는 침략을 비판하거나 이에 반하는 주제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디슨은 『뉴욕타임스』가 미국의 공식적 뉴스 정보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바람에 미국 정부의 파나마 침공에 대한 정당화 전략을 거의 비판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Dickson, 1994).

이처럼 언론은 위기시 정부의 행위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정치권력과의 강한 유대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고 정당화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맥락보도의 결여

테러나 전쟁과 같은 국제분쟁 보도에는 주제적 프레이밍보다 일화적 프레이밍²⁾이 자주 드러났다(이창호, 2005). 아이엔가(1991)는 미국 텔레비전이 1981년부터 1986년까지 발생한 테러사건들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74%의 뉴스 스토리는 테러행위, 집단, 희생자나 사건에 대한 생생한 보도(일화적 프레이밍)로 채워졌고 26%의 스토리는 테러리즘을 일반적 정치적 문제로 논의하는 보도(주제적 프레이밍)로 이뤄졌다. 그의 지적처럼, 테러를 다루는 대부분의 스토리는 일화적(episodic)이었고 그 결과 언론은 테러리스트의 행위나 테러로 인한 희생자를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원인이나 배경을 논의하는 주제적(thematic) 프레이밍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다. 즉 테러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회적, 정치적 분석보다는 개인의 비극이나 감정, 행위에 초점을 둔 개인화된 뉴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다(Bennett, 2003).

1985년 발생한 미 항공기(TWA Flight 847) 공중납치 사건에서도 일화적인 보도가 우세했다. 앳워터와 그린(Atwater & Green, 1988)은 미국 방송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분석했다. 당시 레바논의 시아파(수니파와 함께 이슬람교를 양분하는 분파) 비행기 납치범들은 미국 민간 항공기를 공중 납치해

1) 이는 미디어 보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일컫는다(Herman & Chomsky, p.26). 요컨대 미디어가 기업이나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를 할 경우, 권력집단은 미디어 종사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협박함으로써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들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각종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이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미디어 보도에 대응하기도 한다.

2) 아이엔가(Iyengar, 1991)에 따르면, 텔레비전 네트워크 뉴스는 일화적이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이슈를 틀 짓는다. 전자는 공공의 이슈를 구체적 사례나 특수한 사건의 관점에서 묘사하는 반면 후자는 이슈의 역사적 배경과 해석적 분석을 강조하면서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맥락에서 이슈를 파악한다. 이 같은 분석 틀은 개인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일화적 프레이밍은 개인주의적 책임 전가를 초래하는 반면 주제적 프레이밍은 사회적 책임 귀속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화적 프레이밍에 많이 노출된 시청자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 주제적 프레이밍에 많이 접한 시청자는 사회적 구조나 세력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붙잡은 모든 시아파들을 석방할 것과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군사적 만행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촉구했고 중동지역에서의 미국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이스라엘은 31명의 레바논 죄수들을 석방했다. 연구 결과 미국 방송은 인질들과 그 친인척들을 지배적인 인물로 묘사했고 그들의 인터뷰 장면을 주로 내보냈다. 미 네트워크 방송 ABC, NBC, CBS에 보도된 뉴스의 토픽을 분석한 결과 인질상황(34%)과 미국정부의 반응(17%)이 전체 뉴스스토리의 반(半)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효찬, 2002, 183쪽 참조). 하지만 레바논의 국내·외적 상황이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 등 납치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보도는 극소수였다. 이처럼 미국 방송사는 인질의 무사구출에 초점을 두면서 인질들의 처지와 위기에 관련된 미국 정부의 반응과 협상노력에 많은 비중을 뒀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1979년 수백 명의 이란인들이 테헤란의 미 대사관에 난입하여 66명의 미 대사관 직원들과 미국 시민들을 붙잡고 억류하면서 인질극을 벌인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1979년 이란 혁명 후 정권을 잡은 새로운 지도자 호메이니는 국민들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에 맞서 투쟁할 것을 촉구했고 이는 444일간의 인질극 위기로 치달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게 됐다. 라슨(Larson, 1986)에 따르면, 미 네트워크 텔레비전은 테헤란 미 대사관에 붙잡혀 있던 인질들과의 인터뷰와 그들의 귀환 소식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인질 가족들의 모습을 주로 방송했다. 특히 인질들이 그들 가족과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모습은 감정과 친밀함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텔레비전의 위력을 실감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뉴스는 이러한 인질극이 발생한 원인과 배경을 전달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NBC와 ABC 등 미국 네트워크 방송사의 인질극 사건에 대한 보도는 방송사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 의해 조사됐다(최효찬, 2002 참조). 즉 텔레비전 뉴스는 테러리스트들의 목적과 의도를 적절하게 전달하기보다 테러리스트들의 대의명분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이처럼 테러보도에 자주 나타난 일화적 프레이밍 때문에 시청자들은 테러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원인을 사회적 구조나 세력보다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4) ‘테러리스트’에 대한 부정적 낙인

앞서 살폈듯이, 미 주류 언론은 테러가 일어난 배경이나 맥락을 전달하기보다 테러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테러리스트는 자유 민주주의 세계를 위협하는 악한 존재로 묘사되곤 했다. 이러한 테러리스트에 대한 부정적 낙인은 9·11테러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가령, 9·11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21세기의 첫 전쟁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9·11테러를 전쟁 행위로 해석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강하다. 테러 행위는 가장 큰 건물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지만 미국의 토대를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가장 악한 인간본성을 목격했다”며 “자유 그 자체가 정체불명의 겁쟁이들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놀라움을 전했다(이은택·이창호, 2006). 이러한 부시의 발언은 미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9·11테러를 배후 조종한 주요 혐의자이자 이슬람 투사, 극단주의자로 묘사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은 부시 행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혔다. 미국 정부는 후세인이 알 카에다를 포함한 국제테러리스트를 보호하고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채 유엔사찰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알 카에다와의 관련성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테러행위나 테러리스트는 그 의도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악한 존재 혹은 극단주의로 묘사되곤 했다.

하지만 테러리즘에 대한 규정은 테러 행위가 조직화되고 틀지어지는 제도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사회구조에 따라 다르다. 즉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 그 명칭을 붙이느냐에 따라 테러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요컨대 팔레스타인 영토를 되찾기 위해 이스라엘군과 맞서 싸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들 세계에서는 전사나 영웅으로 추앙받는 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로 취급된다. 리브스(Liebes, 1992)의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 텔레비전의 팔레스타인 봉기(intifadeh) 보도는 팔레스타인 희생자 수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군과의 인터뷰만을 실은 결과 팔레스타인 대변인과 봉기참가자를 배제했다. 또한 이스라엘 텔레비전은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을 ‘범법자(lawbreakers)’, ‘얼굴 복면을 한 사람들(face-covered)’, 그리고 ‘화염병 투척자(Molotov-cocktail throwers)’로 묘사했다(p.53). 반면 이스라엘 희생자의 이름과 나이, 사망자나 부상자 수는 이스라엘 텔레비전에 상세히 소개됐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리브스는 저널리스트가 그들 국가가 개입한 전쟁을 보도하는 것과 그들이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도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를 ‘우리의 전쟁(our war)’이라 불렀고 후자를 ‘그들의 전쟁(their war)’으로 명명했다. 이를 통해 그는 ‘우리의 전쟁’ 보도 원리는 봉기가 일어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애국주의적 보도태도를 보인다고 결론짓고 있다.

9·11테러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정부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혔지만 아랍 지역 주민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되기도 했다(이은택·이창호, 2006 참조). 테러 공격이 일어나자마자 미 정부는 빈 라덴과 그의 테러 조직 알 카에다가 그 배후에 있다고 선언했다. 빈 라덴은 1993년의 세계무역기구 폭파와 1998년 발생한 탄자니아와 나이로비 미 대사관 폭파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묘사됐다. 그는 또한 2000년 10월 예멘에서 17명의 미 함대 승무원의 목숨을 앗아간 미 함선(USS Cole) 공격에도 연루됐다. 미 언론은 그를 세계적인 테러 조직망의 자금을 제공했던 급진적 사우디 백만장자로 낙인찍었다.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강조한 이런 부정적인 낙인에도 불구하고 빈 라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등 아랍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지지와 인기를 얻었다.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오만함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자 영웅으로 추앙됐고 이슬람교의 신념을 펴뜨리기 위해 싸웠던 이슬람의 양심으로 묘사되기도 했다(신성호, 2006 참조). 이처럼 많은 아랍인들에게 오사마 빈 라덴은 영웅이자 이슬람교의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정부에 의해 9·11테러를 배후 조종한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혔다.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이런 대조적인 묘사와 평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테러리스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투사로 여겨질 수 있다”는 오래된 경구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언론은 부정적 뉘앙스를 가진 용어를 무차별적으로 쓰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유수호자나 혁명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테러리스트란 용어의 사용은 테러 행위가 정당하지 않고 범죄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함축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선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테러’라는 용어는 매우 상대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의미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테러’,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는 순수하고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힘의 관계가 작용한 의미투쟁의 결과물이다(이효성, 2002b). 따라서 미디어가 테러와 같은 정치적 폭력 행위를 규정하기 위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지를 규명하는 것은 뉴스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Steuter, 1990).

3. 한국 언론의 9·11테러 보도

비록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내에서의 몇몇 테러 연구들은 9·11테러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령, 최효찬(2002)은 9·11테러 이후 전개된 테러전쟁 국면을 보도한 한국언론의 보도는 전쟁을 부추기는 선정적 보도와 미국적 시각의 일방적 수용으로 요약된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 중심주의, 외신에 대한 지나친 의존, 무리한 추측보도, 피해규모 부풀리기 등 국제 문제나 이슈에 대한 한국 언론의 맹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미국 테러를 진주만 공습에 비유하고 전쟁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거나 서방세계와 이슬람과의 문명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식의 전형적인 부풀리기 보도도 많았다. 방송 뉴스 역시 테러리스트들의 훈련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계속 내보냄으로써 테러의 잔학성과 폭력성을 부각시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패턴은 정재철(2001)의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9·11테러 이후 아프간 공격에 이르기까지 KBS 텔레비전 보도경향이 어떠한지를 뉴스 프레임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KBS는 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군사보복주의라는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프간과 이슬람인들은 과격주의, 결사항전 등의 프레임을 통해 전반적으로 과격한 사람들이라는 해석 틀을 사용해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미국의 대 테러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구도로 프레임되고 있었으며 방송보도는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쟁의 원인규명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전쟁화면을 과도하고 자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유세경과 김미라(2002)는 9·11테러에 대한 한국 『조선일보』, 미국 『뉴욕타임스』, 중국 『인민일보』의 보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자국의 이데올로기와 외교적 이해관계가 뉴스 프레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는 9·11테러를 인류평화를 위협하는 악에 대한 전쟁행위와 그에 따른 필연적인 미국의 군사보복과 응징이란 틀을 통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시켰다. 이 신문들은 연일 비행기 충돌장면과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대피하는 시민들 등 무고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테러의 잔학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번 테러가 선을 상징하는 미국에 대한 악의 전쟁행위라는 틀에 입각, 현실을 구성했다. 반면 『인민일보』의 경우 이 사건을 비교적 축소 보도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보복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뉴스 틀을 견지했다.

이처럼 한국 언론의 9·11테러보도는 미국 언론의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언론이 외신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미국 언론의 보도 경향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최효찬, 2002).

4. 연구문제와 방법

앞서 논의한 대로, 국내의 테러보도 관련 연구는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사건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끈 사건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국민이 테러로 희생된 김선일 씨 피랍사건을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

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문제 1: 한국방송은 김선일 씨 피랍사건과 관련해 어떤 주제를 강조하는가?
 연구문제 2: 한국방송은 김선일 씨 피랍사건 보도시 어떤 정보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한국방송은 김선일 씨 피랍사건을 보도할 때 얼마나 그 사건의 배경을 분석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4: 한국방송은 김선일 씨를 참수한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연구대상 기간은 김선일 씨 피랍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2004년 6월 21일부터 그해 9월 11일까지다.³⁾ 이 기간 동안 KBS와 MBC, SBS 등 방송 3사 저녁 9시(SBS의 경우 8시) 뉴스에 보도된 김선일 씨 관련 모든 뉴스를 분석했다.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 검색을 이용한 결과 모두 386건의 뉴스가 검색돼 분석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KBS는 115건, MBC는 140건, SBS는 131건이다. 총 386건의 뉴스 중 일반 기자가 82.4%인 318건을 보도했고 바그다드 특파원의 보도는 26건(6.7%), 바그다드외 지역의 특파원이 보도한 뉴스는 23건(6.0%), 그리고 나머지 19건(4.9%)은 방송 3사의 앵커가 전달한 뉴스다.

본 연구는 김선일 씨 피랍사건보도에 나타난 테러보도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양적인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앞서 정리한 기존의 테러보도에 나타난 일반적 경향에 따라 뉴스 주제, 정보원, 뉴스 보도 지향,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 단체묘사 등 네 가지 유목에 따라 코딩을 실시했다.

먼저, 뉴스 주제는 테러리스트 요구나 주장, 세계 반응 등 모두 12가지 주제로 범주화됐다.⁴⁾ 구체적인 분석유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테러리스트 요구나 주장: 한국군 철수와 추가파병저지 등 알 자르카위의 요구나 주장을 다룬 내용
- 희생자와 가족: 김선일 씨의 신상이나 가족들의 반응 등을 다룬 뉴스
- 테러위협과 안전대책: 교민들의 안전, 테러대비강화조치나 훈련 등과 관련된 뉴스
- 세계반응: 김선일 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세계 각국의 지원과 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적 비난 등
- 한국정부의 반응과 협상노력: 테러규탄과 김선일 씨를 구출하기 위한 정부의 협상노력 등을 주제로 한 뉴스
- 납치와 피살, 장례과정: 납치와 피살과정, 시신운구, 조문행렬 등을 다룬 뉴스
- 파병반대목소리: 파병반대 시위나 주장 등과 관련된 뉴스
- 피랍의혹: 납치시점이나 가나무역사장이 왜 피랍사실을 이라크대사관에 알리지 않았는지 등 납치과정을 둘러싼 의혹
- 시민반응: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촛불행렬 등 시민들의 반응
- 피랍의혹조사: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 피랍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3) 김선일 씨 관련 대부분의 뉴스는 피랍사실이 공개된 6월 21일부터 피랍의혹을 규명하려는 국회청문회가 시작된 8월초까지 등장한다. 9월 11일까지 연구기간을 설정한 것은 이때가 9·11테러 3주년이어서 김선일 씨 관련 사건이 부분적으로 언론에 언급됐기 때문이다.

4) 이같은 범주화는 기존의 테러보도에 나타난 경향들과 보도기사에 대한 연구자의 주의 깊은 독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또한 범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범주들이 중첩되지 않도록 연구자와 코더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 정부협상능력에 대한 비판: 김선일 씨를 구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협상노력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뉴스
- 기타: 위 11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은 뉴스

뉴스 정보원은 정부관료, 희생자가족/친구, 전문가 등 11가지 유목으로 분류돼 분석됐다. 정부관료 범주에는 해외관료도 포함시켰다. 알자지라나 AP 등 미디어 종사자는 미디어 정보원으로 분류했고 기자가 자신의 관점과 시각에 기초해 김선일 씨 관련 뉴스를 보도한 경우는 기자 정보원으로 분류했다. 정보원이 불명확한 경우는 기타 범주에 포함됐다. 뉴스 보도 지향은 아이엔가가 제시한 일화적/주제적 프레이밍의 구분에 기초해 코딩됐다. 즉 스토리 전개과정에서 사건의 단순한 나열과 전개과정에 초점을 둔 경우는 일화적 뉴스지향으로 분류했고 사건에 대한 분석적이고 해석적이며 사건의 맥락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 강할 경우 주제적 뉴스지향으로 분류했다. 예를 들어, 피랍사건과정과 피랍의혹을 단순히 묘사하거나 전달하는 경우 일화적 범주에 포함됐고 알 자르카위가 왜 김선일 씨를 납치, 살해하려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전달하거나 이라크 내의 무장세력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한 뉴스 등은 주제적 범주에 속했다.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에 대한 묘사는 이 단체를 지칭하기 위해 뉴스에 언급된 용어를 토대로 무장단체/조직/세력, 테러단체/조직/테러범, 저항세력 등 6가지로 범주화됐다.⁵⁾ 뉴스스토리가 분석단위였기 때문에 한 뉴스스토리 내에 서로 다른 용어가 등장할 경우 모두 각각 한 건으로 코딩됐고 동일한 용어가 두 번 이상 뉴스 안에 등장할 경우는 하나로 간주돼 코딩됐다.

신문방송학 석사과정에 있는 두 명의 대학원생이 코딩 유목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은 뒤 코딩을 실시했다. 전체 뉴스의 10% 가량인 40건의 뉴스를 추출해 코더 간의 단순 합치도를 알아본 결과 신뢰계수는 뉴스전달자 1.0, 테러리스트 묘사 .99⁶⁾, 뉴스 주제 .90, 뉴스정보원 .85, 뉴스 보도지향 1.0으로 만족할만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5. 연구결과

1) 뉴스 주제와 정보원

앞서 살폈듯이, 테러관련 주제들은 테러가 일어난 배경이라든지 테러리스트의 요구나 주장을 전달하기보다 테러의 폭력성과 반민주적 성격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보도는 방송 3사의 김선일 씨 피랍보도에도 어느 정도 재현됐다. <표 1>에 나타나듯이, 방송 3사의 보도에 나타난 가장 지배적인 주제는 피랍의혹과 관련된 조사와 납치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을 다룬 뉴스(합쳐 26.7%)였다. 이어 납치와 피살과정을 다룬 뉴스(13.0%)와 테러위협과 안전대책을 주제로 한 뉴스(10.1%)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과병반대목소리(5.7%)나 테러리스트 요구나 주장(4.7%)은 비교적 소홀히 취급됐다. 피랍과정을 둘러싼

5) 무장단체나 무장조직, 무장세력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경우 '무장단체/조직/세력' 범주에 넣어 코딩 처리했고 테러단체나 테러조직, 테러범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경우 '테러단체/조직/테러범' 범주로 묶어 코딩 처리했다.

6) 구체적으로 저항세력 1.0, 납치세력/납치범 .975, 무장단체/조직/세력 1.0, 테러단체/조직/테러범 1.0, 과격단체 .95, 전사 1.0으로 이 값의 평균을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 묘사의 신뢰계수로 삼았다.

<표 1> 피랍 사건 주제

주제	KBS	MBC	SBS	계
피랍의혹조사	17(14.8%)	22(15.7%)	20(15.3%)	59(15.3%)
납치와 피살, 장례과정	14(12.2%)	17(12.1%)	19(14.5%)	50(13.0%)
피랍의혹	13(11.3%)	17(12.1%)	14(10.7%)	44(11.4%)
테러위협과 안전대책	15(13.0%)	16(11.4%)	8(6.1%)	39(10.1%)
기타	6(5.2%)	13(9.3%)	17(13.0%)	36(9.3%)
희생자와 가족	11(9.6%)	10(7.1%)	13(9.9%)	34(8.8%)
한국정부의 반응과 협상노력	8(7.0%)	7(5.0%)	15(11.5%)	30(7.8%)
세계반응	8(7.0%)	8(5.7%)	8(6.1%)	24(6.2%)
파병반대목소리	11(9.6%)	4(2.9%)	7(5.3%)	22(5.7%)
테러리스트 요구나 주장	5(4.3%)	10(7.1%)	3(2.3%)	18(4.7%)
정부협상능력에 대한 비판	5(4.3%)	8(5.7%)	3(2.3%)	16(4.1%)
시민반응	2(1.7%)	8(5.7%)	4(3.1%)	14(3.6%)
계	115(100.0%)	140(100.0%)	131(100.0%)	386(100.0%)

뉴스는 납치시점이나 AP 측의 뒤늦은 테이프 공개, 가나무역사장이 왜 이라크 대사관에 피랍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 등 피랍의혹을 다룬 보도가 많았다. 테러위협과 안전대책을 다룬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의 안전문제를 제기한 뉴스가 두드러졌다. 한편, 방송사 별 뉴스 주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카이제곱=25.75, 자유도=22, p>.05).

<표 2>는 방송 3사가 어떤 뉴스 정보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 방송 3사는 압도적으로 정부 관료에 많이 의존했고 미디어도 정보원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희생자 가족이나 친구들(8.8%)도 주요 뉴스 정보원으로 간간히 등장했지만 테러리스트를 뉴스

<표 2> 피랍사건 뉴스 정보원

정보원	KBS	MBC	SBS	계
정부관료	53(46.1%)	51(36.4%)	61(46.6%)	165(42.7%)
미디어	15(13.0%)	25(17.9%)	13(9.9%)	53(13.7%)
희생자가족/친구	10(8.7%)	10(7.1%)	14(10.7%)	34(8.8%)
기자	8(7.0%)	14(10.0%)	5(3.8%)	27(7.0%)
가나무역종사자	9(7.8%)	10(7.1%)	8(6.1%)	27(7.0%)
일반 시민	7(6.1%)	11(7.9%)	7(5.3%)	25(6.5%)
기타	4(3.5%)	8(5.7%)	8(6.1%)	20(5.2%)
사회단체	8(7.0%)	6(4.3%)	4(3.1%)	18(4.7%)
전문가	1(9%)	2(1.4%)	6(4.6%)	9(2.3%)
테러리스트	0(0.0%)	2(1.4%)	4(3.1%)	6(1.6%)
여론조사나 보고서	0(0.0%)	1(7%)	1(8%)	2(5%)
계	115(100.0%)	140(100.0%)	131(100.0%)	386(100.0%)

정보원으로 이용한 경우(1.6%)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를 뉴스의 주요 정보원으로 사용한 경우 알자지라의 보도를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알자지라 방송이 김선일 씨 피랍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다기 때문이다. AP통신 또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 통신사는 피랍 직후의 김선일 씨 모습이 담긴 동영상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면서 공개시점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 대 테러 전문가들을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주로 테러조직이 김선일 씨 납치와 참수를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가령, SBS는 2004년 6월 23일 보도에서 미 테러 전문가 피터 바겐의 말을 인용하면서 참수는 “당신도 당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효과적인 테러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서는 바인만 테러분석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처형장면을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내 보낸 것은 미디어에 의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전하고 있다. MBC 또한 2004년 6월 25일 보도에서 김선일 씨의 모습을 담은 테이프들이 모두 일신교와 성전이라는 테러조직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전문가들은 테러조직이 이처럼 잔혹한 행위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영향력을 가진 언론사를 통해 방영한 것은 전 세계인들에게 심리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 3사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테러의 전술을 분석하는 데만 노력했지 어떻게 테러리스트와 협상하고 테러에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했다. 뉴스 주제와 마찬가지로 뉴스 정보원 인용에서도 방송사 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표 3> 뉴스 주제와 정보원 간 교차분석

정보원 주제	정부 관료	미디어	희생자 가족	기자	가나무역 종사자	일반 시민	기타	사회 단체	전문가	테러리 스트	여론 조사	계
피랍 의혹조사	50 (30.3%)	3 (5.7%)	0 (0.0%)	0 (0.0%)	6 (22.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9 (15.3%)
납치과정	6 (3.6%)	7 (13.2%)	12 (35.3%)	10 (37.0%)	5 (18.5%)	7 (28.0%)	2 (10.0%)	1 (5.6%)	0 (0.0%)	0 (0.0%)	0 (0.0%)	50 (13.0%)
피랍의혹	11 (2.0%)	10 (18.9%)	0 (0.0%)	2 (7.4%)	14 (51.9%)	2 (8.0%)	2 (10.0%)	1 (5.6%)	2 (22.2%)	0 (0.0%)	0 (0.0%)	44 (11.4%)
테러위협	21 (12.7%)	4 (7.5%)	1 (2.9%)	3 (11.1%)	2 (7.4%)	1 (4.0%)	3 (15.0%)	0 (0.0%)	3 (33.3%)	1 (16.7%)	0 (0.0%)	39 (10.1%)
기타	12 (7.3%)	7 (13.2%)	0 (0.0%)	4 (14.8%)	0 (0.0%)	0 (0.0%)	7 (35.0%)	1 (5.6%)	1 (11.1%)	4 (66.7%)	0 (0.0%)	36 (9.3%)
희생자와 가족	1 (0.6%)	8 (15.1%)	21 (61.8%)	0 (0.0%)	0 (0.0%)	0 (0.0%)	3 (15.0%)	0 (0.0%)	1 (11.1%)	0 (0.0%)	0 (0.0%)	34 (8.8%)
한국정부 반응	27 (16.4%)	1 (1.9%)	0 (0.0%)	0 (0.0%)	0 (0.0%)	1 (4.0%)	1 (5.0%)	0 (0.0%)	0 (0.0%)	0 (0.0%)	0 (0.0%)	30 (7.8%)
세계반응	21 (12.7%)	2 (3.8%)	0 (0.0%)	0 (0.0%)	0 (0.0%)	0 (0.0%)	0 (0.0%)	1 (5.6%)	0 (0.0%)	0 (0.0%)	0 (0.0%)	24 (6.2%)
파병반대 목소리	6 (3.6%)	0 (0.0%)	0 (0.0%)	0 (0.0%)	0 (0.0%)	2 (8.0%)	1 (5.0%)	11 (61.1%)	0 (0.0%)	0 (0.0%)	2 (100.0%)	22 (5.7%)
테러리스트 요구	1 (0.6%)	11 (20.8%)	0 (0.0%)	3 (11.1%)	0 (0.0%)	0 (0.0%)	0 (0.0%)	0 (0.0%)	2 (22.2%)	1 (16.7%)	0 (0.0%)	18 (4.7%)
정부비판	9 (5.5%)	0 (0.0%)	0 (0.0%)	5 (18.5%)	0 (0.0%)	0 (0.0%)	1 (5.0%)	1 (5.6%)	0 (0.0%)	0 (0.0%)	0 (0.0%)	16 (4.1%)
시민반응	0 (0.0%)	0 (0.0%)	0 (0.0%)	0 (0.0%)	0 (0.0%)	12 (48.0%)	0 (0.0%)	2 (11.1%)	0 (0.0%)	0 (0.0%)	0 (0.0%)	14 (3.6%)
계	165 (100%)	53 (100%)	34 (100%)	27 (100%)	27 (100%)	25 (100%)	20 (100%)	18 (100%)	9 (100%)	6 (100%)	2 (100%)	386 (100%)

것으로 나타났다($X^2=22.78$, 자유도=20, $p>.05$).

뉴스 주제와 정보원 간 교차분석 결과, 방송 3사는 피랍의혹조사나 피랍사건에 대한 국내의 정부반응을 전달할 때 정부관료를 많이 인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파병반대목소리를 전달할 때 있어서는 사회단체에 많이 의존했다(<표 3> 참조). 방송 3사가 미디어를 주요 정보원으로 삼은 경우는 주로 테러리스트요구나 주장, 피랍의혹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2) 뉴스보도의 지향

방송 3사의 김선일 씨 관련 뉴스보도는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매우 일화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전체뉴스의 89.9%가 일화적 보도로 채워졌고 테러가 일어난 맥락을 전달한 뉴스는 전체의 10.1%에 그쳤다. 어떤 뉴스 주제들이 보다 분석적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보도지향과 주제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테러리스트 요구나 주장을 다룬 뉴스들이 주제적 뉴스보도인 경우가 많았다. 즉 테러단체가 김선일 씨 피랍사건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분석하는 보도가 자주 등장했다. 가령, KBS는 2004년 6월 21일 보도에서 무장세력이 한국인 김선일 씨를 우선 협박카드로 선택한 것은 추가파병 확정으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파병국이 될 한국 내 여론악화를 노린 전략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MBC 또한 6월 23일 방송을 통해 테러단체가

<표 4> 보도 지향

보도지향	KBS	MBC	SBS	계
일화적	101(87.8%)	125(89.3%)	121(92.4%)	347(89.9%)
주제적	14(12.2%)	15(10.7%)	10(7.6%)	39(10.1%)
계	115(100.0%)	140(100.0%)	131(100.0%)	386(100.0%)

<표 5> 보도 지향과 뉴스 주제 간 교차분석

주제	보도지향	일화적 보도	주제적 보도	계
	테러리스트요구나 주장	5(1.4%)	13(33.3%)	18(4.7%)
테러위협과 안전대책	31(8.9%)	8(20.5%)	39(10.1%)	
기타	30(8.0%)	6(15.4%)	36(9.3%)	
피랍의혹	39(11.2%)	5(12.8%)	44(11.4%)	
정부협상능력에 대한 비판	11(3.2%)	5(12.8%)	16(4.1%)	
납치와 피살, 장례과정	48(13.8%)	2(5.2%)	50(13.0%)	
피랍의혹조사	59(17.0%)	0(0.0%)	59(15.3%)	
희생자와 가족	34(9.8%)	0(0.0%)	34(8.8%)	
한국정부의 반응과 협상노력	30(8.6%)	0(0.0%)	30(7.8%)	
세계반응	24(6.9%)	0(0.0%)	24(6.2%)	
파병반대목소리	22(6.2%)	0(0.0%)	22(5.7%)	
시민반응	14(4.0%)	0(0.0%)	14(3.6%)	
계	347(100.0%)	39(100.0%)	386(100.0%)	

김선일 씨를 살해한 것은 한국 사회 내 파병반대여론을 확산시켜 파병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테러위협과 안전대책을 다룬 뉴스도 주제적 보도경향을 띠는 것이 많았다. 반면, 피랍의혹에 관한 조사나 한국정부와 세계의 반응, 파병반대목소리를 다룬 뉴스는 일화적인 보도경향을 나타냈다.

3)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 묘사

<표 6>에 나타나듯이, 김선일 씨를 피랍, 살해한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 단체는 무장단체/조직/세력으로 가장 많이 묘사됐고 테러단체/조직/테러범, 납치세력/납치범, 저항세력, 과격단체, 전사 순이었다. 이는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에 대한 한국 방송의 묘사가 다소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SBS는 2004년 6월 21일 보도에서 김선일 씨를 억류하고 있는 이 단체가 알 카에다 2인자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무장단체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자르카위는 미국인 닉 버그씨를 직접 참수한 것으로 지목받으면서 범 이슬람권에서 가장 위협적인 테러리스트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MBC 또한 이날 김 씨를 납치한 단체가 이라크 내 알 카에다 지도자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테러단체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앵커 또한 김선일 씨를 납치한 조직은 이라크 테러를 지휘하고 있는 알 자르카위의 무장단체인 것으로 보인다고 알 자르카위가 미국인 인질 처형장면을 인터넷에 공개했던 과격조직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도에서 기자는 알 자르카위가 38세의 대단히 위험한 극단주의자로 꼽히고 있다며 이라크 전역의 테러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KBS는 2004년 6월 24일 이라크에 존재하는 55개의 무장세력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김선일 씨를 납치했던 일신교와 지하드라는 무장단체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인근 아랍국가들로부터 물려든 과격 이슬람 테러리스트들로 구성됐고 테러조직 알 카에다와도 연계돼 있습니다. 무리한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면서 납치한 인질들을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것이 보통입니다.

이처럼 한국 방송 3사는 김선일 씨를 참수한 단체를 과격하고 잔인한 테러단체로 낙인찍으면서 알 카에다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사’라는 표현은 MBC에만 단 1건의 뉴스에 발견됐다. MBC는 2004년 6월 24일 김선일 씨 살해사건을 파병국들에 대한 이라크 무장세력의 선전포고로 해석하면서 앵커와 이진숙 중동전문기

<표 6>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 묘사

묘사	KBS	MBC	SBS	계
무장단체/조직/세력	37	34	38	109건
테러단체/조직/테러범	10	26	20	56건
납치세력/납치범	16	10	13	39건
저항세력	10	10	8	28건
과격단체	3	3	3	9건
전사	0	1	0	1건

자와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 기사는 이라크 저항세력을 크게 사담추종세력, 토착민족주의자, 알 카에다 등 외국인 전사들로 분류하면서 김 씨를 납치, 살해한 알 자르카위의 유일신과 성전이 외국인전사 그룹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교도로서 무슬림의 땅인 이라크를 점령한 미군 타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방송 3사가 자국민이 희생됐던 테러사건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한국 방송은 테러문제의 본질인 이라크추가파병결정에 대한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보도 보다는 피랍과정과 의혹에 많은 보도를 할애했다. 구출협상을 맡았던 이라크인 변호사의 증언⁷⁾에서 드러났듯이, 처음에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었으나 정부의 파병방침 확인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사라졌다. 따라서 언론은 정부의 허술한 테러대책과 대응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비록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라크파병을 반대⁸⁾했지만 파병반대목소리는 방송 뉴스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 방송 3사의 테러관련 보도에 나타난 일반적 경향들은 미국의 테러관련 보도에 나타난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언론은 피랍의 원인보다는 피랍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에 초점을 뒀고 정부관료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했으며 테러리스트를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보도패턴을 보였다. 또한 테러로 인한 위협과 추가 테러의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안전을 강조하고 테러리스트의 요구나 주장보다 테러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에 비교적 많은 보도를 할애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언론은 이라크의 평화유지와 재건,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방침을 비판적으로 보도하지 않아 국익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논의했듯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치권력과 언론의 구조적 유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언론은 정부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하기보다 이라크 파병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가려는 정부의 입장을 비교적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⁹⁾ 이러한 정부와 언론의 유착관계는 언론이 지나치게 정부 관료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표 2>에서 나타났듯이, 한국 방송 3사는 이번 피랍사건을 보도할 때 정부관료에 의존한 나머지 전문가 집단이나 사회단체의 목소리를 그다지 많이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테러나 전쟁과 같은 위기시 언론과 정치권력 간의 공생적 관계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블로치와 레만-윌지그(Bloch & Lehman-Wilzig, 2002)의 주장처럼, 위기시 매스미디어는 동원기능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권력집단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언론은 본연의 임무인 정부행위의 독립적인 감시견 역할을 저버리고 오히려 정부정책과 결정에 많은 지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한 후 제기된 언론학자들의 청원서¹⁰⁾처럼, 언론은 정보원을 전·현직 군부관료나 정부 관료들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단

7) 2004년 8월 3일 KBS 보도 참조

8) 2004년 6월 24일 SBS는 방송을 통해 이라크추가파병에 대한 긴급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응답자의 49.2%가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고 48.5%가 파병에 찬성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9) 박종인(2006)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주류신문들도 국익과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 조속히 파병해야 한다는 논조를 보였다.

체 지도자, 국·내외 학자나 분석가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박홍원, 2001).

또한 테러위협과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런 모습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김선일 씨 피랍소식이 전해지자 노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한 뒤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테러에 대처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MBC는 2004년 6월 25일 추가테러 우려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또한 KBS는 그해 9월 10일 9·11테러 이후 인류의 과제를 진단하면서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테러가 세계 도처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달했다. 이어 한국 테러리즘 연구소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동지역도 위험한 수준이지만 동남아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밝혔다. 그해 10월 5일에는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의 말을 인용, 알 카에다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대한 테러를 13번이나 계획했다는 주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테러의 빌미를 제공한 한국군의 추가과병을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는 뉴스는 부각되지 못했다. 오히려 희생자와 가족, 한국정부의 협상노력, 세계의 반응에 보도의 초점이 모아졌다. 또한 그동안 테러나 전쟁보도에서 흔히 나타났던 우리/그들, 희생자/테러리스트, 선/악, 무고한 시민/범죄자의 이분법적 구도(황인성, 2004; Wittebols, 1991)가 재현됨으로써 테러 사건은 민주주의, 자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묘사돼 폭력적이고 위험한 양상이 부각됐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언론이 피랍사건의 배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 언론의 중동지역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특히 중동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정통한 전문가 풀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표 2>에도 드러났듯이, 전문가가 주요 뉴스 정보원으로 등장한 경우는 전체 뉴스의 2.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9·11테러 이후 미국 주도하에 전개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랍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테러동향은 무엇인지, 중동지역 테러리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지 등과 같은 정보를 언론은 제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경우 중동지역 취재경험이 풍부한 MBC의 이진숙 기자만이 중동지역의 정세나 테러조직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테러단체들이 탄생한 배경이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나 목적, 그들의 전략과 전술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자의 전문성 부족은 전쟁과 같은 국제적 갈등과 위기를 보도할 때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이창호·이영미·정종석·김용길, 2007). 따라서 향후 중동지역의 분쟁에 익숙한 전문기자들을 꾸준히 양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동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해 독자들의 안목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리라 본다. 신문과 달리 방송 뉴스는 그 특성상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도 방송 3사의 뉴스 보도가 매우 일화적인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짧은 저녁 뉴스의 포맷상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보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 한국방송뉴스의

10)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2001년 10월 12일, 로스앤젤레스 독립미디어 센터에는 세계 각지의 커뮤니케이션학자들이 미국 주류미디어의 테러관련 보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좀 더 책임 있고 공정한 보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기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바 있다(박홍원, 2001 참조). 이 청원서에서 학자들은 미국의 주류 미디어가 전쟁을 무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운동가, 중동연구자, 진보적인 목소리들을 반영해 보도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징은 비교적 짧은 길이의 뉴스 아이템을 많이 편집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보도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이민용·윤영철·최영재·윤탈진·김경모·이준웅, 2006).

앞서 논의했듯이 테러리스트에 대한 낙인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 그 명칭을 붙이느냐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미디어가 테러리즘을 규정하는 방식도 이데올로기라는 중심적 메커니즘이 작용한다(스튜터, 1990). 즉 언론은 테러에 대한 여러 명칭 부여를 통해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다. 가령, 자유수호자나 혁명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테러리스트란 용어의 사용은 테러 행위가 정당하지 않고 범죄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함축할 수 있다. 또한 자유수호자란 명칭부여는 테러행위가 정당한 저항이나 투쟁의 산물이란 것을 함축한다. 앞서 살핀 대로 한국 언론의 알 타우히드 알 지하드 묘사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언론보도의 균형성을 위해서는 ‘알 타우히드 조직’이나 ‘알 타우히드 단체’와 같은 중립적 표현을 쓰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테러보도에 대한 준칙 등을 마련해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영국의 BBC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쟁이나 테러 인질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중립을 지킬 것과 명확한 사실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이연, 2004). 비록 영국군에는 적이 되더라도 ‘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하고 사상자나 포로관련 영상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9·11참사를 보도할 때 테러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테러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최효찬, 2002). 테러라는 말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가치편향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취급한다는 로이터의 지침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서구 사회에서 테러리즘은 현 질서에 대항하고 맞서는 세력을 묘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돼 온 개념이다(Steuter, 1990). 따라서 그것은 반정부단체나 좌익 극단주의를 일컫는 용어였던 것이다. 평화저널리즘의 원칙¹¹⁾(자세한 내용은 이은택·이창호, 2006 참조)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사는 감정적인 단어와 악의적 용어를 지양하고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좀 더 정확한 이름과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방송사의 뉴스에 초점을 맞춰 주요 일간지나 인터넷 매체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언론사의 테러관련보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 등 아시아지역이나 아랍지역의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는 지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텍스트 분석에 치우쳐 뉴스보도에 나타난 영상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11) 애너벨 맥골드릭과 제이크 린치(Annabel McGoldrick & Jake Linch)가 제시한 평화저널리즘은 그동안 전쟁보도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편향되어 있었다는 반성에 기초, 새로운 형태의 전쟁보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나타난 보도 흐름이다. 평화저널리즘 원칙에 따르면, 전쟁보도시 정치엘리트와 군 수뇌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민지향적인 전쟁보도를 하며 분쟁의 원인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선과 악의 편으로 나누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Ⅰ 참고문헌

- 박종인 (2006). 『국익과 진실보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홍원 (2001). 미 테러보도에 대한 언론학자 청원서. 『신문과 방송』, 12월호, 106~108.
- 서정민 (2008). 테러리즘미증과 알 카에다즘: 국제테러의 구조적 배경.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8-2호, 89~111.
- 신성호 (2006). 21세기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테러리즘: “척도 없는 네트워크” 테러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정치논총』, 46집 3호, 31~53.
- 유세경·김미라 (2002). 미국, 한국, 중국 일간지의 9·11테러 뉴스 보도 비교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18호, 165~198.
- 이기현·이동훈 (2004). 김선일 씨 피랍관련 초기 TV 뉴스 보도 분석. 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이민웅·윤영철·최영재·윤태진·김경모·이준웅 (2006). 『방송저널리즘과 공정성 위기』. 서울: 지식산업사.
- 이연 (2004). 피랍자 신상보도 자제해야: 인질·납치·테러보도의 허용한계와 국익. 『신문과 방송』, 8월호, 24~27.
- 이원삼 (2002). 이슬람법 일반과 테러문제에 대한 고찰. 『민족학연구』, 제6집, 207~234.
- 이은택·이창호 (2006). 『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창호 (2005). 『전쟁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창호·김영미·정종석·김용길 (2007). 한국언론의 전쟁취재여건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0호, 80~113.
- 이효성 (2002a). 테러리즘과 언론의 관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9호, 213~238.
- _____ (2002b). 테러리즘과 의미투쟁에 관한 일고찰.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10-1호, 5~24.
- 정재철 (2001). 미국 대 테러전쟁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프레임 분석: KBS 저녁 9시 뉴스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3권, 257~278.
- 최효찬 (2002). 『테러리즘과 미디어: 테러를 둘러싼 미디어 이용전략과 사례 (개정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황인성 (2004). 텔레비전의 미·이라크 전쟁보도와 미국식 오리엔탈리즘: KBS 텔레비전 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144~167.
- Atwater, T., & Green, N. F. (1988). News Sources in Network Coverage of International Terrorism. *Journalism Quarterly*, 65(4), 967~971.
- Bennett, W. L. (2003).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New York: Longman.
- Bloch, Y. & Lehman-Wilzig, S. (2002). An Exploratory Model of Media-Government Relations in International Crises: U.S. Involvement in Bosnia 1992~1995. In E. Gilboa (Ed.), *Media and Conflict: Framing Issues Making Policy Shaping Opinions* (pp.153~173). Ardsley, NY: Transnational Publishers.
- Dickson, S. H. (1994). Understanding Media Bias: The Press and the U.S. Invasion of Panama. *Journalism Quarterly*, 71, 809~819.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Herman, E. S. & Chomsky, N. (1988).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ass Media*. New York: Pantheon Books.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rson, J. F. (1986). Television and U.S. Foreign Policy: The Case of the Iran Hostage Crisis. *Journal of Communication*, 36(4), 108~130.
- Lee, C. (2003). Post, Times Highlight Government's War Effort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4(1), 190~203.
- Liebes, T. (1992). Our War / Their War: Comparing the Intifadeh and the Gulf War on U.S. and Israeli Television.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9, 44~55.
- McChesney, R. W. (2002). The US news media and World War III. *Journalism*, 3(1), 14~21.
- Steuter, E. (1990). Understanding the Media/Terrorism Relationship: An Analysis of Ideology and the News in Time Magazine. *Political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7, 257~278.
- Wittebols, J. H. (1991). The Politics and Coverage of Terrorism: From Media Images to Public Consciousness. *Communication Theory*, 1(3), 253~266.

(투고일자: 2009.8.29, 수정일자: 2009.10.8, 게재확정일자: 2009.10.15)

ABSTRACT

An Analysis of Korean Press Coverage of Terror: Centering on the Kidnapping of Sun Il Kim

Chang-Ho Lee*

This study aims to trace the main tendency found in Korean broadcasting news coverage of terror throughout the kidnapping of Sun Il Ki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386 news stories found in KBS, MBC, and SBS. Through this process, it investigated the main theme and source found in the coverage of kidnapping. In addition, it analyzed how the press described Al Tawhid Al Jihad, known as the organization who kidnapped Mr. Kim and how well the press transmit the social, historical background of terror. As a result, the dominant theme found in three news company was that which dealt with investigations about suspicions about kidnapping and suspicions related to the kidnapping. However, the voice against dispatching armed forces and the demand of terrorist were seldom found in the coverage. The news sources which three broadcasting news depended on heavily was governmental officials and the media including Al Jazeera was also main source. The description of Al Tawhid Al Jihad by the press was somewhat negative and the expression ‘militarized forces’ were found mostly. The news which announced the social, historical background of terror were minimal, which indicated that the coverage of terror in Korean broadcasting was still episodic.

Keywords: Grievance Terrorism, Institutional Terrorism, Episodic Framing, Thematic Framing, 9·11 Terror

* Research Fellow(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